



보도 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6. 10.(수) 15:00

국가AI전략위, 교육체계 전환의 ‘대학 AI 교육혁신’ 포럼 개최

- AI 교육 확산을 위한 현장 사례 공유 및 AI 인재양성 방향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6월 10일(수)에 「대학 AI 전환을 위한 교육혁신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대학 AI 교육혁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AI교육 확산을 위한 대학 내 거버넌스, 학제,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공유하고, 대학 AI 교육을 통해 기대되는 교육적 효과와 인재양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위원회는 AI 전환기 인재양성과 교육체계 개편 방향 논의를 위한 총 3회의 릴레이 포럼을 지난 4월부터 기획·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포럼은 두 번째이다. 지난 4월 개최된 첫 번째 포럼에서는 “AI 전환기 청년 고용위기 현황 진단 및 분석”을 주제로 AI 확산이 청년 고용과 노동시장 진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 양상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포럼은 교육·인재분과장을 비롯한 분과위원과 대학의 AI 교육 관계자 등 380여 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대학 내 교육혁신 사례 발표와 패널토의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부에서는 가천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여대 등 4개 대학의 AI 교육 추진 방향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였으며, 대학 차원의 AI 교육 추진체계 및 교육과정 개편,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학제 운영, 산업·현장 수요와 연계한 교육모델 등이 다루어졌다.

이어 2부 패널토의에서는 이민석 교육·인재분과장을 중심으로 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대학 AI 교육혁신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대학 AI 교육이 교과목 확대를 넘어 모든 전공 교육의 내용과 방식,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함께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전공별 AI 활용 역량 강화, 우수 교육모델 공유·확산, 공통 교육자원 마련, 교수자 역량 강화, 전공 간 장벽 완화 등 대학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송상훈 위원회 지원단장은 “대학은 AI 핵심 인재와 전 분야 AI 활용 인재를 함께 길러내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며, “위원회는 대학 현장의 혁신 사례와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함께 AI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양성과 교육체계 전환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인재양성지원팀	책임자	팀 장	김지연 (02-2224-0000)
		담당자	사무관	한종기 (02-2224-4175)
			전문관	김연주 (02-2224-4178)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 삶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